

양돈경영 규모와 수익성 (中)



정찬길
(건국대축산경영학과 교수)

대규모의 경제성과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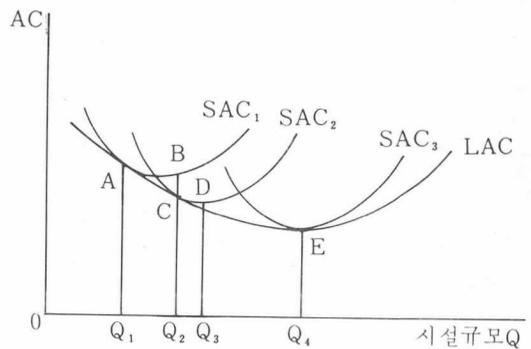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은 장기생산량과 최저평균비용과의 관계를 제시하여 주는 곡선으로써 생산물 1단위당 평균비용을 의미한다.

경영규모를 대형화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규모상의 보수가 점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불변의 생산요소 가격하에서 투입을 3배로 증가할 때에 총산물이 3배 이상으로 증가 한다면 평균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대규모생산의 유리성」, 「출비(出費)에 대한 보수점증」, 「대규모 생산의 절약성」이라고 부른다.

단기평균 비용곡선(SAC)은 주어진 시설규모 하에서 일정한 산출량을 생산하는데 따른 비용곡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점감한다는 것은 큰 시설의 단기평균비용곡선이 작은 시설의 그것보다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의 SAC₁, SAC₂, SAC₃는 각각 OQ₁, OQ₂, OQ₃의 시설규모하에서의 단기평균비

용곡선들이다. 시설규모 OQ₁수준에서 단기비용이 최소화 되는 점은 점 A이며, 이는 단기산출량을 OQ₁으로 부터 OQ₂로 증가시킴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단기비용최소점(최적조업율) B점 보다 높은 비용수준이다. 그러나 기업은 단기비용최소점인 B점 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를 OQ₂로 확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OQ₂의 생산수준에서라면 단기비용곡선 SAC₁의 극소점 B는 생산량 OQ₂ 수준에 적응하는 새로운 단기비용곡선 SAC₂상의 점 C보다 높은 비용을 보여주기



〈그림 1〉 대규모생산과 비용

● 경영 규모의 확대에 의해 자본장비율을 증대 시키면 노동생산성은 향상하고 자본생산성은 저하된다. ●

때문에 기업은 OQ_2 수준에서 새로운 단기비용곡선 SAC_2 를 갖게 되고 그 수준에서의 적정산출 수준은 OQ_2 , 그리고 비용은 Q_2C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점 C는 단기비용 SAC_2 의 최소점인 점 D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시설을 OQ_3 로 확대시키지 않는 한 기업의 최소비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시설규모의 원점으로 부터 OQ_4 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설규모하에서의 단기평균비용곡선을 에워싼 포락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이다. 따라서 점E까지 이르며 감소하고 부분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은 규모의 경제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E점을 지나 상승하는 장기평균비용곡선은 규모의 비경제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E점까지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유리하고 E점 이후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불리함을 나타낸다.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평균비용이 체감하고 이로서 첫째, 분업과 전업에 의한 작업시간과 노력의 절약, 작업의 능률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숙련도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비의 절감에 기인한다.

둘째, 대규모기계와 시설의 도입으로 인한 경비의 절감인데, 예컨대 300평의 돈사를 600평으로 짓는다 해서 재료가 2 배로 들지 않는 것이다. 또, 600마력 원동기의 생산비는 300마력 전동생산비의 2 배가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경영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일정율의 산출량의 증가가 있는 반면에 그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평균비용의 절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세째, 화폐적 절약을 들 수 있다. 생산요소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부대비용의 절약이 따르게 된

다. 즉 비대비용(사무비, 운송비, 수수료 등)은 구입량의 대소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요소의 대량구입에 의한 가격할인과 대결제기간의 장기화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소 특히, 원료의 판매자 측의 운송비, 사무비의 절약이 구매자 측의 운송비, 사무비의 절약이 구매자 측에 부여되는 이익이고 생산요소 자체가 구입량의 대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규모확대와 수익성의 저하

비육돈경영에 있어서 규모확대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개별 경영을 중심으로 보면 사육 규모의 변화에 의한 노동생산성(부가가치÷투하노동량)은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생산성(부가가치÷자본투자액)은 노동생산성과는 반대로 사육규모의 확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본장비율(투자자본액÷투하노동량)은 사육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 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규모에 의한 증대경향과 자본장비율의 증대가 자본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영규모의 확대에 의한 자본장비율을 크게 하면 필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지만 자본장비율의 증대는 자본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자본수익성 혹은 소득의 증대와는 결부되지 않는 것 같다.

양돈의 생산성과 기술구조와의 연관을 고찰하기 위하여 양돈의 생산성지표와 기술요인 및 경제적 요인간의 상관행열을 <표1>에서 보면 노동

〈표1.〉 생산성지표와 기술 및 경제요인 상호간의 상관행열

구분	노동의 부가가치비	가생산치성	물조수재익비비대율	물생산적성	사시육노동간	증사체1료kg당비	생소체1축kg당비	진위생료비	사고율	건시설물비	소축비	광동열력수도비
1	1.00	. 40	-. 83	. 38	-. 24	-. 40	-. 39	-. 01	-. 25	-. 03	-. 34	-. 06
2		1.00	. 08	. 94	-. 90	. 02	. 15	. 06	. 19	-. 15	. 11	-. 04
3			1.00	. 05	-. 22	. 47	. 59	. 03	. 35	. 02	. 51	. 08
4				1.00	-. 88	. 02	-. 08	. 08	. 15	-. 13	-. 11	-. 12
5					1.00	-. 11	-. 11	-. 01	-. 23	. 06	-. 04	. 01
6						1.00	-. 06	-. 06	. 09	-. 05	-. 18	-. 29
7							1.00	-. 08	. 21	-. 13	. 97	. 25
8								1.00	-. 12	. 14	. 06	. 17
9									1.00	. 13	. 21	. 11
10										1.00	-. 08	. 39
11											1.00	. 22
12												1.00

의 부가가치 생산성과 가치생산성, 물재비대 조수익비율, 물적생산성, 증체1kg당 사료비, 생체1kg당 밀소비용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사육노동시간과의 상관계수는 적고,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력화 보다도 오히려 물재비 특히, 사료비와 밀소비는 절감을 나타내

는 것이다. 또한, 가치생산성 및 물적생산성과 사육노동시간의 상관계수는 매우 높아, 성력화가 물적비용을 고려한 생산성에 관해서는 노동시간의 절감이 그 향상을 초래하는 역할을 크게 하는 것이다. **養豚**

돈육비방 (豚肉秘方)

돼지고기 이런곳에 좋습니다

● 위경련 (胃痙攣)

돼지염통 1개를 썰어(남자는 암돼지 염통, 여자는 수돼지 염통)그속에 자기 나이(年齡)수 대로 후추알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적당량의 소금을 치고 소주 한 컵에 물 한 컵을 부어 삶아 돼지염통과 국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된다. 매일 아침 저녁 한번씩 복용한다. 빠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상복하면 낫게 된다.

● 사지수족냉증 (四肢手足冷症) 및 통마증 (痛麻症)

수돼지 콩팥 1쌍을 얇게 썰어 계심(桂心) 2냥중(75g)에 물 5사발을 붓고 졸여 2사발이 되면 이것을 3등분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1등분씩 복용하면 된다. 여기에 약간의 술을 타면 더욱 좋다. 장복하면 매우 효과가 있다.